

새벽종

변함없는 열정으로
내일의 공동체를 보듬다

Magazine

2026 07+08
vol.27

새벽종

새벽종

2026 07+08 vol.27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와 공기를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ISSUE NO.27
ISSN 2799-9343

더 많은 〈새벽종〉을
만나보세요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초록빛으로 피어나는 새마을운동의 열정

눈부신 여름 햇살이
마을 곳곳을 환하게 비춥니다.

새마을가족의 발걸음도
그 빛을 따라 더욱 분주해집니다.

작은 손길 하나,
밝은 미소 하나가 모여
우리의 여름은 더 푸르고
풍성해집니다.



새마을운동의 열정은
오늘도 마을 곳곳에서
싱그럽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손길이 필요한 곳에 든든한 힘을 보태며,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갑니다.

[youtube.com/@새마을운동중앙회](https://www.youtube.com/@새마을운동중앙회) [instagram.com/letssaemaul](https://www.instagram.com/letssaemaul)

[facebook.com/letssaemaul](https://www.facebook.com/letssaemaul) blog.naver.com/letssaemaul pf.kakao.com/_zNxkxnT



CONTENTS

2026 07+08
vol.27

새벽을
열다

- 06 새마을-ing
2026 새마을 외교 그룹(SDG) 제1차 회의
- 10 함께 만든 세상
우리 마을을 지키는 새마을의 따뜻한 연대
- 14 지구촌새마을 속으로
망대 입라힘 연구원이 전하는 협동의 힘
- 16 초록빛 동화
여름, 새마을이 그린 싱그러운 풍경
- 18 빛나는 사람들
현장을 밝히는 새마을의 열정



Cover Story
계절의 푸르름만큼이나 이웃을 향한 새마을가족의 열정은 언제나 눈부시게 빛납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손길이 필요한 곳마다 묵묵히 힘을 보태며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갑니다. 마을을 밝히는 작은 미소와 부지런한 발걸음은 공동체의 내일을 풍성하게 가꾸는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도 새마을운동은 변함없는 열정으로 내일의 공동체를 따뜻하게 보듬어 갑니다.

오늘을
일구다

- 20 우리동네 새마을 ❶
직장·공장 충남 청양군협의회
- 24 우리동네 새마을 ❷
문고광주서구지부
- 28 청년, 새마을하다
푸른 내일을 키우는 새마을의 초록빛 배움
- 32 새마을을 만나다
김일섭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협의회장

내일을
꿈꾸다

- 36 그 노래, 그 길
파도 끝에 닿은 섬, 울릉도
- 40 소통의 기술
대화를 완성하는 비언어적 표현들
- 42 생활 백서
뜨거운 여름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 44 새마을 브리핑
- 58 새마을 라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세계와 함께 나눈 새마을의 이야기

2026 새마을 외교 그룹(SDG) 제1차 회의

대한민국 농촌의 기적을 이끈 새마을운동의 발자취를 세계와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인류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외교 협력의 장이 열렸다. 지난 6월 1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2026 새마을 외교 그룹(SDG) 제1차 회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최한 이번 회의는 주한 외교사절과 국내외 관계자, 외국인 유학생 등 52개국 170여 명이 참석해 지구촌 농촌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글 김채은 사진 김상준



주한 공관과 함께 연 새마을 외교의 첫걸음

새마을 외교 그룹(SDG, Saemaul Diplomacy Group)은 새마을 운동중앙회가 각국 대사관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출범한 민간 주도 공공외교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새마을운동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각국의 마을과 지역사회에 최적화된 발전 모델을 함께 찾아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GL) 회원국이 51개로 확대되는 등 새마을운동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주한 외국 공관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새마을운동의 핵심 가치가 각국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뿌리 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23개국 주한 대사를 비롯한 외교사절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외교부, 농촌진흥청 등 정부 부처, 그리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의 개회사로 문을 연 행사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영상 축사로 열기를 더했다. 반 전 총장은 새마을운동이 한국의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이야기임을 강조하며, SDG의 출범을 축하했다.

한국 농촌을 깨운 원동력, '사회적 자본'과 '자조 정신'

기조강연자로 나선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새마을 운동: 한국은 어떻게 농촌공동체를 변화시켰는가'를 주제로 새마을운동이 한국 농촌사회에 가져온 변화를 되짚었다.

김 원장은 "한국은 어떻게 전국 마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 핵심 비결은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현장 중심의 지도자 교육, 촘촘한 모니터링과 거버넌스였다.

새마을운동이 단순한 물질적 자원 투입을 넘어 주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조와 협동의 정신을 심어준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때 축적된 공동체의 힘은 훗날 대한민국이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이를 극복하는 단단한 버팀목이 되었다.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의 개회사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의 기조강연

세계로 뻗어가는 새마을의 내일

오후 세션에는 주한 잠비아 대사관의 브라이트 심바야 서기관이 '잠비아 대사관의 가교 역할과 새마을운동 확대를 위한 방향'을 주제로 사례 발표에 나섰다. 잠비아는 2023년부터 치칸카타와 카푸에 2개 지역, 4개 마을에서 새마을 시범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이는 단순한 생활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난두바 마을의 간호사 숙소 건립 사업은 그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다. 보건 인력이 마을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숙소 임대료를 통해 마을 공동 기금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마을회관 건립과 급수 시설 확충 사업 역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며 생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발표에서는 이 같은 성과와 더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철저한 기록관리와 회계 투명성, 현장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사업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체계적인 관리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대사 발표 세션에서는 농촌 개발, 역량 강화, 거버넌스라는 세 가지 의제를 두고 각국 외교관들의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다. 첫 문을 연 에티오피아 대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재정적 지원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참여와 공유된 가치에서 시작된다”며 새마을정신을 기후 위기 대응 활동으로 확장한 사례를 소개했다. 라오스와 온두라스는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인프라 개선, 청년과 여성의 참여, 스마트 농업과 녹색기술의 필요성을 전했다. 두 번째 의제인 ‘역량 강화’ 세션에서 파푸아뉴기니 대사는 제도와 재정이 갖춰져도 결국 핵심은 ‘의식 장벽’을 깨는 것이며, 새로 설립된 파푸아뉴기니 새마을운동 센터를 통해 공무원과 주민의 의식을 개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타지키스탄 대사 또한 현재 새마을운동 초청연수를 통해 역량 강화 교육을 받고 있는 자국 지도자들의 소식을 전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스리랑카 대사관 측은 지방 거버넌스와 현장 점검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국의 미래 지도자로서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흡수하고 적용할지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영남대학교에서 새마을국제개발과 공공정책을 전공 중인 잠비아 출신 토비야스 캄포 씨는 “많은 개발도상국의 전통문화 속에는 이미 지역사회 동원 원칙이 존재한다. 다만 대한민국은 정부와 학계가 지역의 아이디어를 학문적 연구와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이 다르다”며 결국 해결의 본질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의식 개혁’에 있으며, 오늘의 이 플랫폼이 학계와 국제기구로 더 넓게 확장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종대 교수 역시 청년들이 제시한 실천적 해법에 깊이 공감하며 감사를 표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새마을운동중앙회 최형재 사무총장은 농촌 개발·역량 강화·거버넌스라는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생생한 경험을 나눈 이번 회의는 SDG의 첫 번째 결실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는 새마을운동이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나눌 수 있는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주한 외교사절과 전문가, 유학생들이 나눈 대화 속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세계와 함께 나눈 새마을의 이야기는 이제 더 넓은 협력의 장으로 뻗어가고 있다.



mini interview

우리도 할 수 있다

잠비아가 배운 새마을의 힘

“
잠비아와 한국 사이에 맺어진 인연이 잠비아 마을들에
더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가져다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브라이트 심바야 서기관



Q 한국과 잠비아를 잇는 외교 현장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소개해 주세요.

A 저는 잠비아 공화국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주한 잠비아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브라이트 심바야입니다. 재무 담당 2등 서기관으로서 공관의 예산 집행과 자금 흐름을 관리하고, 각종 거래를 투명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간 문화 교류와 교육 협력을 지원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잠비아 국민을 위한 영사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Q SDG 제1차 회의에서 발표한 잠비아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A 새마을운동의 핵심 가치를 잠비아 현지에 맞게 적용해 기후 위기 대응과 식량 안보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의존에서 자립으로’ 의식이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주민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잠비아 정부가 추진 중인 선거구개발기금(CDF)도 이러한 자립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함께 소개했습니다.

Q 앞으로 협력이 확대된다면 어느 분야에서 가장 큰 시너지를 기대하시나요?

A 농업 기계화, 여성 주도 소상공업, 지역 주도 인프라 구축에서 큰 시너지를 기대합니다. 잠비아 청년 인구(15~35세)는 약 530만 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해, 청년 협동조합과 마을 신용협동조합 설립도 유망한 분야입니다. 난두바 마을의 의료진 숙소처럼 보건 인력이 농촌에 거주하며 상시 근무할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Q 새마을운동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A 한국과 잠비아는 1990년 수교 이후 농업·인프라·지역개발 등에서 협력을 넓혀왔으며, 잠비아는 새마을정신을 이어받아 더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협력이란 결국 개인과 공동체가 자원과 노력을 함께 모아 모두에게 이로운 목표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앞에서는 든든하게 변화 앞에서는 새롭게

우리 마을을 지키는 따뜻한 연대, 새마을운동과 청년새마을

우리의 여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마음 편히 여름날의 낭만을 만끽하는 우리 곁에는 무탈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퇴락별 아래로 걸어 나간 이웃들이 있다. 무더위와 갑작스러운 비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계절, 새마을운동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왔다. 여기에 자신들만의 유쾌한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넓혀가는 청년새마을연대와 대학새마을동아리의 참여가 더해진 지금, 새마을운동은 오늘의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자 내일의 변화를 준비하는 가장 뜨겁고도 시원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 편집실

#1 여름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손길

#지역안전망 #재난대응훈련
#방역활동 #안전지킴이



여름은 생동감의 계절이다. 길어진 해를 따라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바다와 계곡, 동네 쉼터는 시원한 바람을 찾아 온 사람들로 북적인다. 그러나 폭염과 집중호우, 위생 문제와 안전사고는 여름철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이 여름을 지켜내는 이들이 있다. 바로 우리 곁의 새마을가족이다. 이들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는 무더위 속에서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재난 대응훈련을 하고, 행여 누군가 아프지 않을까 골목길 구석구석 방역 장비를 짊어지고 위생을 챙긴다. 아이들이 오가는 스쿨존과 주민들의 늦은 귀갓길을 지키는 방법 활동까지, 이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별이 유난히 뜨거운 올여름, 새마을가족이 묵묵히 다져놓은 안전한 울타리 덕분에 우리의 계절은 한층 더 든든하고 포근하다.

#2 무너진 자리 위에 틔워낸 희망

#함께지키는공동체 #산불피해지원
#호우피해복구 #구호물품지원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와 익숙한 일상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는다. 산불과 폭우로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린 곳에는 깊은 탄식과 막막함이 가득하다. 하지만 이 절망의 현장에는 늘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 주민들의 곁을 지켜온 새마을가족이 있었다. 재난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현장을 찾아 진심 어린 성금과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수마가 핏줄이 간 자리에서 팔을 걷어붙여 복구에 힘을 보탰다. 진흙더미를 치우고 무너진 벽을 일으켜 세우며 흘린 땀은 이웃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생수와 휴지, 지친 몸을 누일 여름 이불, 복구 현장에서 손발이 되어줄 작업장화와 목장갑까지. 이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구호물품에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연대와 다시 일어설 용기를 복돋는 응원이 담겼다. 재난의 아픔이 남은 자리마다 따뜻한 온기를 채워 넣는 새마을가족의 발걸음은 무너진 일상 위로 다시금 내일을 살아갈 힘찬 희망을 세워 올리고 있다.

재난 대응 훈련
304회 3,886명 참여
방역 활동
9,305개소 72,464명 참여



방법·스쿨존·안전지킴이 봉사
4,223회 52,263명 참여



산불 피해
856개소 복구활동
5,028명 참여
성금·성품
12억 8천5백만 원



호우 피해
711개소 복구활동
8,766명 참여
성금·성품
2억 7천6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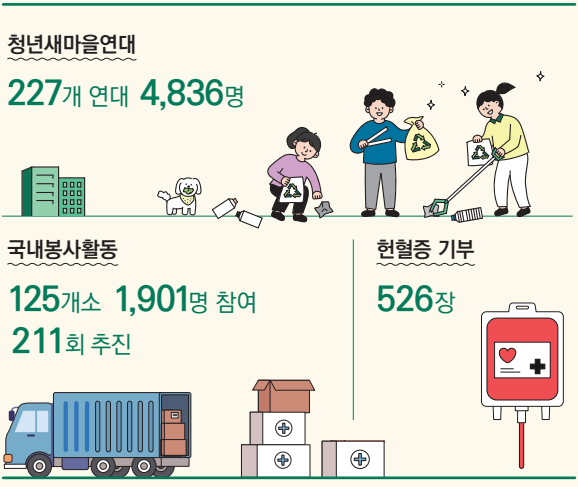


#3

현장에 활력을 더하는 청년새마을

#청년새마을연대 #헌혈릴레이

#봉사키트 #MZ새마을FIESTAR



새마을운동의 뜨거운 현장에 새로운 세대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참여가 더해지며 동네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 중심에 선 청년새마을연대는 주민들의 일상에 스며드는 다채로운 활동을 펼친다.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는 ‘줍강’과 리사이클 활동부터 염색, 족욕, 어르신들을 위한 인지향상 프로그램, 벽화 그리기와 추억의 전통 놀이까지. 정성껏 준비한 맞춤형 봉사키트는 지역 주민과 청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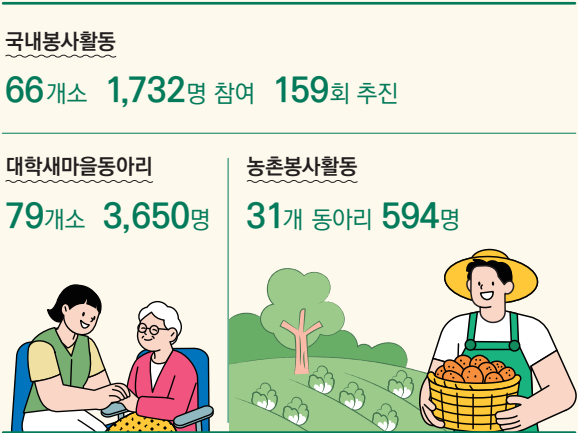
이어주는 친근한 매개체가 되어준다. 청년들이 만들어낸 움직임은 나눔과 뜨거운 교류의 장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을 기부하며 생명나눔의 가치를 전했다. 또한, 청년과 대학생이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고 소통하는 ‘MZ 새마을 FIESTAR’를 개최해 젊음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기도 했다. 청년새마을의 발걸음은 우리가 마주할 내일의 새마을운동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4

캠퍼스 밖으로 이어지는 대학새마을

#대학새마을동아리 #청년이잇는새마을

#재능봉사 #농촌봉사



낭만과 배움으로 가득한 캠퍼스의 울타리를 넘어 조금 더 넓은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긴 청춘들이 있다.

대학새마을동아리는 단순한 스펙 쌓기를 넘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재기발랄한 방식으로 풀어내며 이웃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농촌봉사활동 현장에서 대학생들의 활약은 단연 돋보인다.

#5

국경을 넘어 세계로 향한 청년의 발걸음

#캄보디아해외봉사단 #교육봉사

#청년해외봉사 #문화교류



우리 동네를 따스하게 밝히던 청년들의 새마을정신이 국내를 넘어 해외 현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로 향한 새마을 해외봉사단은 낯선 기후와 환경 속에서도 현지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단원들은 내리쬐는 태양 아래 주저 없이 삽을 들고 마을 길을 매끄럽게 다듬었다. 낡은 마을회관과 학교 식당의 벽면을 화사하게 물들이고 푸른 조경수를 심는 봉사 현장마다 청춘들의 값진 땀방울이 가득 배어 있다. 어디 그뿐일까.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와 마주하며 전한 보건, 체육, 예술 교육, 그리고 서로의 춤과 노래를 나누며 하나가 되었던 다채로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현지 주민들과 단원들 사이에 잊지 못할 다정한 추억의 다리를 놓아 주었다. 국내의 작은 마을 골목길에서 시작된 새마을해외봉사단의 작지만 위대한 발걸음은 이제 세계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며, 새마을운동이 지닌 무한한 상생의 가능성을 증명해 내고 있다.

지구촌을 향한 청춘의 기록

- 파견 국가 캄보디아
- 파견 기간 2025. 7. 15. ~ 7. 29.(14박 15일)
- 봉사단 구성 총 29명(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22명 / 청년새마을연대 3명 / 인솔자 4명)
- 활동 내용 마을길 평탄화 공사, 마을회관·식당 벽화 작업 및 도색, 조경수 식재, 맞춤형 교육봉사(한국어·위생·예술 등), 미니 운동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문화교류

새마을운동에서 배운 협동의 힘 코트디부아르 농촌의 변화를 꿈꾸다

■ **망대 입라힘(Mande Ibrahim)**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학 전공·AI사회연구소 연구원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망대 입라힘 연구원은 공동체가 변화하고 회복하는 과정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대학 시절 한국학 프로그램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처음 접한 그는 한국으로 건너와 그 관심을 전문적인 연구로 확장해 가고 있다. 한국 생활 5년 차, 한국학중앙연구원 에서 새마을운동과 한·아프리카 관계를 깊이 있게 들여 다보고 있는 그를 만나 새마을운동의 진정한 가치와 코트디부아르 농촌 개발의 가능성을 들어보았다.

글 김채은 사진 홍승진



Q 안녕하세요. <새벽중> 독자들에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국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A 안녕하세요.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망대 입라힘입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며, AI사회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신뢰를 쌓고 협력하며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을 비롯해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 그리고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어울리고 정착해 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재한 코트디부아르 유학생 및 졸업생 협회 회장으로도 활동하며, 한국과 코트디부아르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교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코트디부아르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지금의 연구로 이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의 경험은 공동체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제가 자란 코트디부아르는 60개가 넘는 민족 집단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한다는 것은 큰 자산이지만, 그만큼 서로 이해하려는 포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코트디부아르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정치적 갈등이 지역과 민족 간 갈등으로 번지며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제가 자란 두에쿠에(Duekoue) 지역도 그 상처가 매우 깊은 곳이었습니다. 가까운 이웃들이 서로를 경계하고 빈곤이 심화되며, 결국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느꼈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갈라진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서로를 신뢰하고 살아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갈등과 공존의

해법을 현실 속에서 찾고 싶어 자연스럽게 사회학으로 관심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Q 코트디부아르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새마을운동 연구로 이어진 여정이 궁금합니다.

A 한국에 오기 전, 코트디부아르의 펠릭스 우푸에부아니 대학교에서 황희영 교수님이 운영한 한국학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새마을운동을 처음 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류 열풍이 불기 전이라 한국은 지금처럼 친숙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황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 한국 사회와 새마을운동을 배우며, 새마을운동이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이뤄낸 과정이라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뜻을 모으고 행동한 모습은 제가 고민해 온 코트디부아르의 공동체 회복과 농촌의 미래를 생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관심이 한국 유학으로 이어졌고, 현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도현 교수님의 지도 아래 새마을운동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Q 새마을운동의 여러 가치 중에서도 ‘협동’을 핵심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새마을운동의 근면·자조·협동 정신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면’이 스스로 달라지겠다는 내면의 의지를 깨우고, ‘자조’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바꾸겠다는 책임감을 부여한다면, ‘협동’은 그 개인의 마음을 이웃과 마을 전체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협동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같은 일을 함께하는 노동의 공유를 넘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공동의 목표가 생기면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동은 새마을운동을 성공으로 이끌게 한 바탕이자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가치입니다.

Q 새마을운동의 경험은 코트디부아르 농촌 개발에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나요?

A 코트디부아르에도 예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중심으로 서로 돕는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의 계모임과 유사한 방식의 상호

입라힘 연구원이 말하는
새마을운동의 3가지 키워드



부조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까운 사람들이 힘을 보태는 연대 의식도 깊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대가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의 범위에만 머무른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개인과 가문의 연대 수준에 머물던 힘을 마을 전체의 조직적인 힘으로 확장하는 훌륭한 방법론을 보여주었다고 확신합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도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농기계나 농업 자재를 공동 관리하고, 카카오나 커피 같은 주요 작물의 생산 과정에서 협력 구조를 체계화한다면 농촌 공동체의 힘은 훨씬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상호부조의 정신에 새마을운동의 ‘협동’이 더해진다면 코트디부아르 농촌에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Q 앞으로의 연구 계획과 새마을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A 한국의 새마을지도자들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훌륭한 리더십이란 주민의 신뢰와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 귀한 배움을 코트디부아르 현지 리더 양성과 농촌개발 현장 사업에 접목해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과 코트디부아르, 나아가 아프리카를 잇는 학술적 연구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각지에서 땀 흘리고 계신 새마을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묵묵히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 다. 새마을운동의 경험과 지혜가 다음 세대와 세계 여러 나라에 이어지길 바라며, 저 역시 연구자로서 그 가치를 널리 전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름, 새마을이 그린 싱그러운 풍경

한여름 태양 아래, 새마을의 초록빛 열정이 피어납니다.
지친 이웃의 쉼터이자 농촌의 든든한 일손이 되어 따뜻함을 전합니다.
서로를 살피는 손길이 있기에 우리 마을의 여름은 늘 싱그럽습니다.

그림 박경인

새마을 피서지 문고

피서지 독서문화시설 운영

피서지문고와 무더위 쉼터에서
책 한 권의 여유와 시원한 심을 전하며
이웃의 여름을 살뜰히 살핍니다.

농촌 일손 돕기

일손이 모자란 농가를 찾아
함께 일하고 함께 웃으며
농촌의 여름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재난·재해 구호 활동

재난·재해 현장에 따뜻한 마음을 모아
복구의 손길을 더하고,
이웃의 일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현장을 밝히는 새마을의 열정

새마을가족을 움직이는 따뜻한 힘

무더운 날씨에도, 바쁜 일상에서도 새마을가족은 도움이 필요한 곳을 향해 먼저 발걸음을 옮깁니다.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믿음,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는 진심이 오늘도 새마을가족이 앞장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황경희

광주 서구부녀회장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보람, 그리고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새마을가족의 끈끈한 힘이 현장에 앞장서게 하는 힘입니다. 소외된 이웃의 일상과 건강을 세심히 살피며, 더 따뜻한 마을을 만드는 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신민주

충남 청양군 청년새마을연대 회원

저에게 봉사는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함께하는 소중한 나눔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보람이 있었기에 현장에서도 기꺼이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빛나는 순간을 오래도록 기록하며, 행복한 기억을 남기는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김옥자

문고 광주 서구지부회장

책을 매개로 이웃과 소통하고, 나눔의 가치를 키워갈 수 있다는 마음이 새마을 문고 가족들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책과 문화가 주민들의 일상에 작은 힘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넓혀가겠습니다.

최서영

신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 부회장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새마을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탄소중립 교육으로 여러 학교를 찾아가 환경의 중요성을 전했던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남은 2학기에도 더 많은 학생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섭



엄양호

직장·공장 충남 청양군협의회 부회장

이웃을 위한 작은 손길도 여럿이 모여면 지역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쁜 일상에서도 현장으로 향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청양 곳곳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고, 필요한 나눔이 닿을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백영만

경북 구미시협의회 총무

새마을조직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 힘이 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해 복구 활동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언제나 현장에서 필요로 한다면 두 팔 걷고 앞장서겠습니다.

니
다



‘찰칵’ 한 장에 사랑을, ‘찰칵’ 두 장에 추억을

직장·공장 충남 청양군협의회

충남 청양의 한 작은 학교 운동장에 하루 동안 특별한 사진관이 문을 열었다. 지역의 초등학교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직장·공장 충남 청양군협의회가 마련한 자리였다. 회원들은 저마다의 재능과 손길을 더해 학교 곳곳을 가족의 시간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청양군지회와 청양군청년 새마을연대도 함께 힘을 보탰다. 카메라 앞에 선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음으로 하루를 채워갔고, 셔터를 누를 때마다 그 순간들은 사진 속에 오래도록 바래지지 않을 따뜻한 기억으로 기록됐다.

글 장희주 사진 전경민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본 콘텐츠는
오디오북으로도
제공됩니다.



따뜻한 손길로 담아낸 우리 가족 인생샷

푸른 햇살이 내리쬐는 6월의 어느 날, 청양 목면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직장·공장 충남 청양군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 회원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가족사진을 선물하기 위한 정성 어린 마음과 손길이 하나둘 모여든 것이다. 촬영을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직장협의회 회원들은 간식과 음료를 정성껏 준비하고, 행사장 곳곳을 정돈하며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조명을 점검하고 촬영 동선을 살피는 움직임도 분주했다.

사진관이 문을 열 시간이 가까워지자 평소보다 조금 더 멋지게 차려입은 가족들이 하나둘 학교 운동장으로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들뜬 얼굴로 운동장을 신나게 뛰어다녔고, 부모들은 연신 아이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고 옷깃을 매만지며 촬영을 준비했다. 그렇게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가족들이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설 순간을 기다렸다.

촬영이 시작되자 짙은 녹음이 내려앉은 학교 교정은 금세 온기 가득한 야외 스튜디오로 변했다. 운동장 벤치에 나란히 앉아 어깨를 기대기도 하고, 개구쟁이 아이들과 함께 철봉에 매달리거나 운동장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가장 자연스럽게 편안한 순간들을 담아냈다. 도서관 안에서는 또 다른 분위기의 촬영이 이어졌다. 커커이 쌓인 책장을 배경으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편안한 의자에 기대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가족만의 다정한 시간을 채워갔다.

회원들은 가족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촬영 내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서로 마주 보면서 활짝 웃어볼까요?”, “김치 하면서 웃어보세요.” 하는 회원들의 정겨운 한마디가 이어질수록 가족들의 긴장은 자연스럽게 풀렸고, 어느새 현장은 환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한 장의 가족사진 뒤에 모인 ‘새마을의 마음’

이날 진행된 ‘가족사진 찍어주기 사업’은 직장협의회가 20여 년간 묵묵히 이어오고 있는 대표 사업 중 하나다. 사업 초기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남기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됐다. 현재는 농촌 지역 초등학교 가족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부터 액자와 앨범 제작까지 지원하며,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가족이 함께 추억을 쌓고 특별한 하루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대상을 농촌 지역 초등학교 가족으로 정한 데에는 청양의 지역적 특성과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다. 초등학교 시기는 가족과 함께하는 추억이 가장 많이 쌓이는 시기이지만, 농촌 지역은 계절마다 이어지는 농사일과 여러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온

환한 웃음으로 추억을 남기는 가족





특별한 추억을 카메라에 담는 새마을가족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사진을 남기는 일이 쉽지 않다. 이에 직장협의회는 학교와 협력해 참여 가족을 모집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이 있다면 인근 지역까지 기꺼이 문을 열어두고 있다.

가족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는 일 뒤에는 회원들의 재능과 정성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 촬영 경험이 있는 회원들은 자신이 보유한 장비와 조명을 아낌없이 현장으로 가져왔고, 또 다른 회원들은 직접 운영하는 가게에서 떡볶이와 음료, 간식 등을 준비해 이웃들을 맞이했다. 완성된 사진을 담아낼 액자와 앨범 제작 역시 회원들이 비용과 자원을 기꺼이 보태며 각자의 일과 재능을 자연스럽게 나눔으로 연결하고 있다. 여기에 청양군 청년새마을연대의 참여는 현장에 또 다른 활력을 더했다. 20~30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 회원들은 촬영 보조와 현장 지원을 맡아 가족들이 더욱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순간을 남길 수 있도록 곳곳에서 손을 보탰다. 직장협의회는 오랜 경험과 청년들의 생동감 있는 에너지가 어우러진 이번 활동은 청양군 새마을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세대를 잇고 지역을 연결하는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새마을로 잇는 ‘함께 살아가는 마음’

회원들의 재능과 자원을 지역과 연결하는 방식은 비단 사진 촬영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들의 손길은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에도 가장 먼저 지역 곳곳을 향한다. 지난해 청양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산사태 위험과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직장협의회 회원들은 누구보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갔다. 중장비를 보유한 회원들은 직접 굴착기를 투입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고, 다른 회원들 역시 현장을 함께 정리하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처럼 직장협의회는 평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다가도 도움이 필요한 순간 자신이 가진 기술과 경험을 지역을 위해 아낌없이 나눈다. 이천용 직장협의회장은 이러한 활동을 이어오게 하는 원동력은 결국 ‘함께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지역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회원들이 누구보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함께 움직이고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새마을이고 봉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지금까지도 새마을 활동을 기쁘게 이어오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가족사진 촬영 현장에 청양군청년새마을연대 회원들이 함께한 것도 같은 흐름 속에 있다. 청양은 인구 감소로 청년층이 많지 않은 지역이지만, 직장협의회는 청년들이 지역 활동과 봉사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반을 만들어왔다.

실제로 회원들의 자녀가 청년연대 활동에 함께하며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봐 온 신인석 청양군지회 회장은 “지금 함께하는 청년 회원들이 언젠가는 또 다음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며 흐뭇한 바람을 전했다. 그 바람을 잇듯 이날 함께한 신민주 청양군청년새마을연대 회원은 “청양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자연스럽게 고향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어요 새마을 활동을 통해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느끼게 됐고, 앞으로도 청년 회원으로서 모두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선배들의 묵직한 노하우와 청년들의 싱그러운 열정이 더해진 직장협의회는 발걸음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저마다의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보태며, 서로를 보듬고 마을을 연결하는 일. 그렇게 직장협의회는 오늘도 새마을운동이 지켜온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삶의 현장 곳곳에 새기고 있다.



홀몸어르신 집 고쳐주기



직·공장 회원들이 홀몸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노후 싱크대를 교체하고 집안 대청소를 진행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EM흙공 만들기



새마을지도자들이 EM흙공 2,100개를 만들고 발효·건조 과정을 거친 뒤 정산면 내 소하천에 투척했다. 수질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한 청양 만들기과 녹색 새마을운동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열두 빛깔 동심이 빚어낸 그 시절 우리가 사랑한 노랫말

문고광주서구지부

바쁜 일상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새마을가족들의 순수한 동심을 되찾아주기 위해 문고광주서구지부는 매년 특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 바로 '전국 어린이 동요 부르기 대회'다. 동요를 매개로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함께 나누고, 잊고 지냈던 순수한 마음을 다시 만나는 뜻깊은 자리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열두 팀이 무대에 올랐다. 참가자들은 모두 어린아이처럼 노래를 즐기며 저마다의 동심을 마음껏 펼쳐 보였고,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반짝이는 '어린이들'이었다.

글 장희주 사진 전경민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본 콘텐츠는
오디오북으로도
제공됩니다.

흥겨운 무대로 최우수상을 차지한 '동동풍당' 팀



교복을 입고 동심으로 돌아간 '정음' 팀



귀여운 율동과 노래로 밝은 에너지를 전한 '이쁜이' 팀

모두가 '어린이'가 된 순간

6월 29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로비에는 광주를 비롯해 서울·부산·정읍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다. 저마다 무대에서 선보일 노래에 맞춰 의상과 소품을 갖춘 참가자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화음을 맞췄고, 또렷한 목소리로 노랫말을 되뇌며 마지막 연습을 이어갔다. 잠시 후 무대에 오를 이들은 직업도, 나이도, 일상의 무게도 잠시 내려놓은 채 동심을 품은 '어린이'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무대는 단순한 경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2024년부터 이어온 이 대회는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순수한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부모 세대의 따뜻한 정서를 전하는 세대 통합의 장이다. 특히 올해는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열리던 대회를 전국 규모로 확대해 더욱 많은 참가자가 동심을 나누는 뜻깊은 무대로 거듭났다. 대회 규모가 커진 만큼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도 있었다. 올해부터는 '동영상 예심 제도'를 도입해 전국에서 접수된 가창 영상을 바탕으로 본선 진출팀을 선발했다. 심사위원들은 단순한 가창력보다 동요가 지닌 순수한 감성과 진정성, 팀원 간의 조화와 표현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본선 무대에 오른 열두 팀은 그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주인공들이었다.

개성으로 피어난 열두 개의 작은 동심

이제 저마다의 개성과 동심을 담은 자신들만의 무대를 펼칠 시간이다. 본격적인 경연에 앞서 개회식이 진행됐다.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에 이어 김옥자 문고광주서구지부 회장의 대회사와 김동노 문고광주시지부 회장과 배창숙 광주서구새마을회 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지며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김옥자 회장은 대회사에서 "동요에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따뜻한 공감의 힘이 있다"라며 "광주 서구를 넘어 전국의 새마을가족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 축제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노 회장은 "대회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래를 통해 행복을 나누는 과정 그 자체"라며 "오늘 무대에 오르는 모든 참가자가 순위를 떠나 관객과 함께 즐기며 마음껏 무대를 누리길 바란다"라고 참가자들을 따뜻하게 격려했다. 참가자들을 향한 응원 속에 본선 경연의 막이 오르자 무대 위에는 저마다의 개성과 추억을 담은 공연이 차례로 이어졌다. 팀들은 노래와 율동, 악기 연주와 퍼포먼스를 조화롭게 구성해 각기 다른 색깔의 무대를 선보였다.

전북 정음의 이금자 참가자는 율동을 곁들여 <과수원길>을 부르며 밝고 경쾌한 에너지를 전했다. 체육복에 빨간 머리띠를 맞춰 착용한 '이쁜이' 팀은 <둥글게 둥글게>에 맞춘 율동으로



한마음으로 무대를 응원하는 새마을가족

객석의 미소를 자아냈고, ‘원플러스원’ 팀은 직접 기타를 연주하며 〈나뭇잎 배〉를 불러 색다른 감성을 더했다. ‘서울’ 팀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초록바다〉를 열창하며 무대를 향한 진심을 전했다. 가장 큰 웃음을 안긴 팀은 ‘개구리 패밀리’였다. 〈개구리〉 노래에 맞춰 개구리 복장을 하고 등장한 이들은 폴짝폴짝 뛰는 율동으로 객석의 웃음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교복에 곰돌이 머리띠를 맞춰 쓴 ‘정읍’ 팀은 〈곰세마리〉를 부르며 서툴지만 진심 어린 화음으로 순수한 매력을 전했고, 화려한 가발과 반짝이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새싹어린이’는 〈앞으로〉를 경쾌하게 소화하며 공연장의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했다.

열정이 빛난 제3회 전국 어린이 동요 부르기 대회 시상식



잔잔한 감동을 전한 무대도 이어졌다. ‘농이마을’ 팀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반달〉을 불렀고, 부산에서 온 권태영 참가자는 〈섬집아가〉를 담담하게 들려주며 몽클한 여운을 남겼다. 주황색 티셔츠와 모자를 맞춰 입은 ‘화사’ 팀은 〈파란마음 하얀마음〉에 맞춘 경쾌한 무대로 객석의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그라지오’ 팀은 색소폰과 타악기 연주를 더한 〈고향의 봄〉으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였다. 마지막 순서인 ‘동동풍당’ 팀은 하모니카 연주와 아름다운 화음이 어우러진 〈오빠생각〉으로 공연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장식했다. 무대 아래에서는 관객들도 노래에 맞춰 손뼉을 치고 함께 따라 부르며 공연을 즐겼다. 이날만큼은 승패를 겨루는 경연장이 아닌, 동요를 통해 추억을 나누고 동심을 함께 노래하는 모두의 무대였다.

함께해서 더 빛난, 우리 모두가 주인공!

경연이 끝난 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와 관객을 위한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시극 공연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를 비롯해 ‘홀릭오카리나’ 팀의 〈물놀이〉 연주, 손가락 난타 〈짚레꽃〉 공연이 펼쳐지며 객석의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무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각 분야의 심사위원들이 자리를 빛냈다. 유웅장 전직 음악교사가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김혜자 민주평화



진지하게 심사하는 어린이 심사위원

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여성위원장과 손연숙 광주서구새마을회 이사가 함께했다. 여기에 동구 지역아동센터의 추천을 받은 김나들·신희온 어린이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동요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시선에서 참가자들의 무대를 세심히 살피며 의미를 더했다. 심사 후 유웅장 심사위원장은 “오늘은 경연이라기보다 모두 하나 되어 노래하는 축제의 장이었다”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무대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다음 대회에서는 더 성장한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따뜻한 총평을 전했다.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결과 발표의 시간, 무대 위에 나란히 선 열두 팀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다. 우수상은 ‘그라지오’ 팀에게 돌아갔고, 영예의 최우수상은 ‘동동풍당’ 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동동풍당’ 팀의 조창민 단장은 “퇴근 후 팀원들과 함께 각자 맡은 파트를 하나씩 맞춰왔다”라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돼 정말 기쁘다. 무엇보다 팀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함께해 준 덕분에 더욱 뜻깊은 무대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비록 순위는 나누었지만 이날 무대에 패자는 없었다. 모든 팀이 참여상을 수상했고, 참가자들은 서로의 열정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기쁨을 함께했다. 뜨거운 여름 태양만큼이나 열정으로 가득했던 제3회 전국 어린이 동요 부르기 대회, 이날 무대에서 무엇보다 빛났던 것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노래하며 웃음을 나누는 새마을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이었다. 동요와 함께한 이 특별한 시간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순수한 마음을 되찾아주며, 새마을가족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따뜻한 추억 한 장으로 새겨졌다.



광주 서구새마을회(회장 배창숙)는 회장 특별기부금 1,500만 원을 재원으로 한 ‘2026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7개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각 동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형 활동을 펼쳐며, 이웃 간 유대감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새마을가족 260여 명이 전남 신재생에너지 홍보 전시관과 해남 산이정원을 방문해 지속가능한 탄소 중립 실천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진 한마음대회에서는 다채로운 화합의 장을 통해 회원 간 소통을 도모하며, 더욱 견고하고 활력 넘치는 서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결속을 다졌다.

푸른 내일을 키우는 새마을의 초록빛 배움

부산광역시새마을회 '찾아가는 청소년 환경 체험 교실'

부산광역시새마을회는 아이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청소년 환경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새마을동아리 멘토들이 교실을 찾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끄는 수업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환경 보호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 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전한다. 교실에서 움튼 작은 습관이 부산의 푸른 내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한 환경 교실을 찾아가 봤다.

글 장희주 사진 손호남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대학새마을동아리 멘토



초롱초롱한 눈빛이 머문 환경 체험 교실

부산 동일중앙초등학교의 한 교실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들뜬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부산광역시새마을회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환경 체험 교실'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교단 앞에는 딱딱한 전문 강사 대신 신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 전윤호 회장이 주강사로, 최서영 부회장이 보조강사로 나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전윤호 회장이 환한 미소로 “오늘은 바다 이야기를 해볼까요?”라고 첫인사를 건네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아이들도 하나둘 시선을 앞으로 모았다. 어느새 교실은 바다를 향한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이날 환경 체험 교실은 이론과 체험을 결합한 2교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먼저 1교시에는 부산이 바다를 품은 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우리가 지켜야 할 푸른 바다'를 주제로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참여형 방식으로 이어졌다.

“바다는 왜 중요할까요?” 첫 질문이 던져지자 교실 곳곳에서는

손을 번쩍 드는 아이들의 모습이 끊이지 않았다. “산소가 없어져요!”, “생선을 못 먹어요!”, “비가 안 와요!” 저마다의 생각이 쏟아질 때마다 전윤호 회장은 아이들의 답을 자연스럽게 이어 받아 바다가 우리 삶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했다. 바닷속 플랑크톤이 산소를 만들고 바다가 구름과 비를 만들어 지구의 기후를 유지한다는 이야기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바다의 소중함을 배웠다면 이제는 바다를 아프게 하는 원인을 살펴볼 차례였다. “바다를 아프게 하는 범인은 누구일까요?”라는 질문과 함께 화면에는 쓰레기로 뒤덮인 해변과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의 모습이 나타났다. 조금 전까지 웃음이 가득 하던 교실은 금세 진지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플라스틱이요!”, “생활하수요!” 전윤호 회장은 플라스틱과 생활 쓰레기, 생활하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생물을 위협하고, 먹이사슬을 거쳐 우리의 식탁과 일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영상과 함께 설명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 속 장면을 유심히 바라봤다.

수업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환경교육



이어졌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올바른 분리배출하기, 쓰레기 무단 투기하지 않기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이 소개됐고, 아이들도 바다를 위해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약속을 하나씩 이야기했다.

배운 내용을 놀이로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됐다. 아이들은 4~5명씩 모둠을 이뤄 환경 보드게임 ‘우리 바다를 지켜주세요’를 진행했다.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에 해당하는 젠가 블록을 뽑고, 블록에 적힌 ‘생활 쓰레기를 분리배출해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요’ 같은 환경 실천 문구를 함께 읽는 방식이었다. 블록이 쓰러질까 조마조마한 웃음이 교실을 채우는 사이,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들은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하나씩 쌓여갔다.

바다의 쓰레기가 새로운 가치를 입다

2교시는 버려진 쓰레기가 새로운 가치를 품은 생활 소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해안가에서 수거한 ‘씨글라스(Sea Glass)’를 활용해 냄비받침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활동에 참여했다. 씨글라스는 바다에 버려진 유리병이나 식기 조각이 파도와 모래에 오랜 시간 씻기며 조약돌처럼 둥글고 매끄럽게 마모된 유리 조각이다. 얼핏 보면 알록달록한 보석 같지만, 사실은 바다를 떠돌던 유리 쓰레기다. 버려진 쓰레기가 새로운 쓰임을 얻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원 순환의 의미를 배워갔다.



색도 모양도 제각각인 씨글라스를 하나씩 고르는 순간부터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아이들도 이내 만들기에 집중했고, 교실은 어느새 조용한 몰입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냄비받침 틀 위에 씨글라스를 하나씩 올려보며 색의 조화를 맞추고 가장 마음에 드는 구성을 찾는 손끝에는 저마다의 개성이 가득 담겼다. 디자인을 완성한 뒤에는 틀에 홈멘트를 붓고, 미리 구상한 자리에 씨글라스를 하나씩 올려 자신만의 냄비받침을 완성했다. 바다를 떠돌던 유리 조각은 아이들의 손을 거쳐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생활 소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아이들의 결과물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담임교사는 “아이들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일상에서 어떻

게 실천해야 하는지는 막연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수업은 대학생 멘토들의 친근한 설명과 씨글라스를 활용한 만들기 체험을 통해 환경 보호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내 손끝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배운 작은 실천이 아이들의 일상이 되고, 그 마음이 오래도록 이어져 바다를 지키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새마을이 그리는 부산의 푸른 내일

부산시새마을회의 ‘찾아가는 청소년 환경 체험 교실’은 총 3회차에 걸쳐 아이들이 환경을 반복해서 배우고 직접 실천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이어가는 데 의미를 둔다. 계절과 교육 주제에 따라 체험 프로그램을 달리하고 저학년은 체험 중심으로, 고학년은 토론과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조금 특별한 이유는 교단 앞에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이 선생님이로 선다는 점이다. 부산시새마을회는 매년 초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강의법을

교육하고, 이를 마친 청년들을 환경 강사로 양성한다. 청년 멘토가 교실을 찾으면 아이들은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고, 웃으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렇게 지구온난화와 자원순환, 탄소중립처럼 조금은 낯설 수 있는 환경 이야기도 어느새 아이들의 일상 가까이 스며든다.

이러한 교육은 이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닿기 위한 새로운 걸음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새마을회는 앞으로 부산의 바다와 낙동강 등 지역의 환경 이야기를 수업 속에 더욱 깊이 담아내고, 스마트기기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체험 콘텐츠를 더해 아이들이 기후변화와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보다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더 많은 아이들이 훗날 푸른 부산을 함께 만들어갈 주인공으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다.

환경 체험 교실은 바다를 왜 지켜야 하는지 함께 묻고, 버려진 유리 조각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환경을 ‘내 일’로 느껴보는 시간이다. 오늘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실천이 집으로, 학교로, 그리고 부산의 바다로 천천히 이어지길 바라며 부산시새마을회는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푸른 내일을 향한 걸음을 이어갈 것이다.



늘 술선수범하고,
 굿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남보다 먼저 실천하고,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이고 싶습니다.



불길 앞에 선 새마을지도자
신기리의 하루를 지켜내다

김일섭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협의회장

지난 5월, 경북 구미시 선산읍 신기리의 평화롭던 오후가 순식간에 깨어졌다. 한 농가 주택에서 시커먼 연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온 것이다. 농가와 민가, 그리고 푸른 산지가 맞닿은 시골 마을에서 작은 불씨는 자칫 큰 피해로 번질 수 있었다. 모두가 당황해 발을 동동 구르던 위기의 순간, 김일섭 협의회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열기 속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오직 '내 이웃과 고향을 지켜야 한다'라는 책임감뿐이었다.

글 김채은 사진 전경민



긴박했던 순간, 마을을 먼저 생각하다

그날 김 회장은 집 앞 복숭아 과원에서 한창 봉지 씌우기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준비하던 평화로운 정적을 깨뜨린 건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주민들의 웅성거림과 비명이었다. 심상치 않은 기운에 과원 밖으로 뛰어나온 그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이웃 농가에서 거대한 불길기 치솟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김 회장의 머릿속에 얼마 전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찾았던 산불 피해 현장, 그리고 영덕군 산불 복구 현장에서 참꽃나무를 심으며 마주했던 참담한 잿더미의 풍경도 선명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잔인하게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지 몸소 목격했던 그였기에 판단은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막지 못하면, 우리 마을이 사라진다!'라는 생각뿐이었다.

“마을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어떤 사정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 집도 당시 비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 망설이기

보다 119 신고가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불길이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적치물에서 시작된 불길은 이미 건잡을 수 없이 커졌고, 열기를 이기지 못한 소형 가스통들이 “캉! 캉!” 소리를 내며 터져 나갔다. 파편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김 회장은 주민들을 향해 “멀리 대피하세요!”라고 소리친 뒤 주저 없이 소화기를 들고 불길을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이미 커진 화마는 소화기 한두 대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지난겨울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함’이었다. 평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장치함을 열어 보고 사용법을 숙지해 두었던 그의 꼼꼼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거침없이 장치함을 열고 70m에 달하는 소방호스를 끌어당겼다. 밸브를 열자 엄청난 수압이 실린 호스가 그의 몸을 사정없이 밀어냈지만, 김 회장은 이를 악물고 호스를 붙잡은 채 불길의 중심을 향해 물줄기를 퍼부었다. 30년 넘는 직장 생활 동안 몸에 익힌 소방 훈련과 ‘꼭 막아야 한다’는 집념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초기 진화였다.

서울내기 직장인, 고향의 '새마을지도자'가 되다

위험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새마을지도자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공포를 이겼을 뿐이다. 김일섭 회장에게 선산읍은 어린 시절 추억이 곳곳에 남아 있는 고향이다. 구미시 선산읍 신기리는 깊은 역사와 농촌의 정취를 간직한 마을로, 고려 태조 왕건과 후백제 견훤의 전투 이야기가 전해지는 냉산이 가까이 있고 멀지 않은 곳에는 낙동강이 흐른다. 여섯 남매의 맏이자 외아들이었던 그는 초등학교 시절 서울로 떠난 후 줄곧 타향에서 치열한 직장인으로 살아왔다. 그러다 6년 전 홀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마침내 귀향을 결심했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돌아온 고향 농촌의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계절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농사일은 서툴기만 했고,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임에도 마을에서는 여전히 '뽕뽕한 청년' 대접을 받으며 일손을 보태야 했다. 처음부터 새마을지도자를 꿈꾼 것은 아니었다. 농촌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던 어느 날, 마을에 풀이 무성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다. 김일섭 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산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새마을 담당자를 만나게 됐다. 그때 마을마다 새마을지도자가 있어 환경정비와 나눔 활동처럼 주민 생활과 가까운 일을 살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관심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신임 이장이 취임할 무렵, 그는 직접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그렇게 신기리 새마을지도자로 첫발을 내디뎠다.

“마을 문제를 상의하러 갔다가 우연히 새마을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마을에 필요한 일을 살피는 모습이 제가 생각해 온 봉사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며 쌓은 경험으로 고향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된 뒤 김 회장은 마을 일에 빠짐없이 참여하려 애썼다. 예초와 방역, 환경정비처럼 일상 가까이에서 필요한 일부터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까지 마을 곳곳에는 지도자들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마을을 깨끗하게 가꾸고, 이웃의 안부를 살피며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돕는 일도 그가 생각하는 새마을지도자의 몫이었다.

농촌 폐자원 수거활동



그중에서도 김일섭 협의회장이 가장 뜻깊게 여기는 활동은 농약 공병과 비료 포대 등 농촌 폐자원을 수거하는 일이다. 농촌에서는 농번기가 지나면 농약병과 폐비닐, 비료 포대 등이 곳곳에 남기 쉽다. 김 회장에게 이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다. 지금 세대가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였다. 선산읍 새마을지도자들은 각자 마을을 돌며 폐자원을 모으고, 이를 정기적으로 환경공단에 매각한다. 그렇게 마련한 수익금은 반찬·김치 나눔과 어르신 식사 지원 등에 쓰인다. 환경을 지키는 일이 다시 이웃을 돕는 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폐자원 수거는 김 회장에게 더욱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마을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심다

이번 일을 겪으며 김일섭 협의회장은 농촌 지역의 안전을 위해 평소의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기본 요령을 익혀두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산 자락 입구처럼 화재 확산 위험이 큰 곳에는 비상소화장치함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커졌다. 실제로 이번 화재 이후 주민들도 비상소화장치함의 위치와 대피 방법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불조심’이라는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마을의 일상을 지키는 약속임을 확인한 것이다.

김일섭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선산읍 새마을가족들과 힘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가고자 한다. 특히 탄소 중립을 위한 나무 심기 활동이 선산읍 곳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림조합 등과 협업할 계획이다. 폐자원 수거로 환경을 지키고, 나무 심기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 그가 바라보는 새마을 활동은 오늘의 삶을 돌보는 동시에 다음 세대가 살아갈 내일을 가꾸는 일이다. 김 회장이 생각하는 새마을운동의 가치 역시 ‘더불어 잘 사는 것’에 닿아 있다.

선산읍이 속한 구미시는 도농 복합도시이지만, 선산읍 역시 인구 감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렇기에 서로의 안부를 살피고, 마을의 일을 나누어 맡으려는 마음이 더욱 소중하다. 김 회장은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제가 사회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동료 지도자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늘 솔선수범하고, 곳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지도자로 남고 싶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남보다 먼저 실천하고,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지도자이고 싶습니다.”

오늘도 김일섭 협의회장은 신기리의 일상을 살핀다. 불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그날처럼, 그의 새마을활동은 지금도 마을 가까이에서 이어지고 있다. 묵묵히 마을을 살피는 손길, 그 손길이 쌓여 신기리의 하루는 조금 더 안전해지고, 선산읍의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있다.



파도 끝에 닿은 섬, 동해의 여름을 만나다 경북 울릉도



망망대해를 건너야 비로소 닿을 수 있는 섬이 있다. 멀어지는 육지를 뒤로하고 동해의 물결이 깊어질수록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울릉도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화산이 빚어낸 가파른 절벽과 투명한 물빛,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길에는 오랜 자연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리고 그 바다 너머에는 독도가 있다. 광복의 계절에 만나는 울릉도는 여름 바다의 아름다움과 함께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것들을 조용히 돌아보게 한다.

글 편집실 사진 한국관광콘텐츠랩

독도를 지켜낸 역사를 만나는 곳 독도박물관

울릉도 여행에서 독도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름이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km 떨어진 이 섬은 바다 너머 멀리 자리하고 있지만, 그 의미만큼은 언제나 또렷하게 우리 곁에 있다. 독도를 향한 마음이 자연스레 깊어지는 울릉도에서 먼저 둘러볼 만한 곳이 있다. 배를 타고 독도로 향하기 전 독도의 역사와 의미를 차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 울릉읍 도동의 독도박물관이다.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조성된 독도박물관은 독도와 울릉도, 동해를 둘러싼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국내 유일의 영토박물관으로 독도 관련 고지도와 문헌, 사진 자료를 비롯해 독도의 자연 생태 콘텐츠까지 폭넓게 전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독도의용수비대와 관련한 자료는 쉽게 잊히지 않는다. 1950년대 울릉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독도의용수비대는 동해 한가운데의 작은 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힘을 모았다. 이들은 독도에 머물며 일본 어선과 순시선의 접근을 막았고, 물과 물자가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무기와 필요한 물품을 직접 마련해 우리 땅을 지켜냈다. 독도를 지키려는 노력은 국립경찰에 수비 업무와 장비를 인계하기 전까지도 계속됐다. 광복절이 있는 8월, 박물관에서 마주한 기록들이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다. 박물관을 나와 독도전망대에 오르면 맑은 날 독도를 바라볼 수 있다. 전시실에서 만난 이야기 때문일까. 전망대에서 마주하는 동해는 조금 더 깊고, 그 너머의 섬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진다. 울릉도 여행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시간을 넘어 독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여정이 되는 순간이다.



독도박물관



내수전몽돌해변

몽돌 사이로 반짝이는 여름 바다

내수전몽돌해변

뜨거운 여름 햇볕을 피해 이제 울릉도의 시원한 바다로 향할 차례다. 내수전몽돌해변은 모래사장 대신 둥글고 매끄러운 몽돌이 해안을 가득 채운 독특한 해변이다. 파도가 밀려오고 쓸려갈 때마다 몽돌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자르르한 소리는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여름의 음악처럼 느껴진다.

이 일대는 닥나무가 많이 자생해 저전포라고도 불렸으나 울릉도 개척민이었던 김내수라는 인물이 화전을 일구고 살았다는 데서 ‘내수전’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여름이면 내수전몽돌해변은 스노클링을 즐기려는 여행객들로 활기를 띤다. 바닷물이 워낙 맑아 수경을 끼고 들여다보면 바닷속 바위와 물고기의 움직임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보인다. 해변 주변에는 해수욕장과 샤워장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도 편안하게 머물 수 있다.

울릉도의 바다는 육지의 해수욕장과 달리 날씨와 파도에 민감하다. 바람이 거세거나 파도가 높을 때는 해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편이 안전하다. 물놀이 후에는 가까운 내수전일출전망대에 올라가 보자. 해안과 산세가 한눈에 펼쳐지는 풍경을 마주하면, 울릉도가 왜 ‘신비의 섬’이라 불리는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바다에서 놀고, 바다를 내려다보고, 다시 짝조름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는 시간. 내수전에서의 하루는 여름 울릉도를 가장 가까이 느끼게 한다.

화산섬 품 안에 펼쳐진 초록빛 섬표

나리분지

울릉도 여행에서 나리분지는 전혀 다른 매력으로 여행자를 맞이한다. 바깥으로는 거친 절벽과 푸른 바다를 보여주는 섬이지만, 안쪽으로 들어서면 초록빛 너른 평지가 펼쳐진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나리분지는 울릉도에 이런 곳이 숨어

있었나 싶을 만큼 낮설고도 반갑다.

울릉도에서 가장 넓은 평지로 꼽히는 나리분지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칼데라 지형 안에 자리한다. ‘나리’라는 이름은 식량이 귀하던 시절, 사람들이 섬말나리의 뿌리를 캐 먹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방을 둘러싼 산줄기 사이로 밭과 길, 낮은 집들이 평화롭게 이어지는 마을 풍경은 울릉도가 바다 위에 솟은 섬이라는 사실을 잊게 한다. 이곳에서는 명이나물과 삼나물 등 울릉도 특산 산채가 자라며, 둥근 나무를 우물물 모양으로 쌓아 올려 벽을 이룬 울릉도 전통 가옥 투막집도 만날 수 있다.

나리분지의 매력은 무엇보다 여유로움에 있다. 칼데라 안에 솟은 작은 화산 봉우리 ‘알봉’을 한 바퀴 도는 알봉둘레길은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탐방로다. 질푸른 녹음이 이어지고 비교적 선선한 공기가 감도는 길은 천천히 걷기 좋다.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복잡했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 바쁜 일상을 벗어난 여행자에게 나리분지는 차분한 심터가 되어준다.

파도와 절벽, 몽돌과 물빛 그리고 화산섬의 품 안에 자리한 평온한 들판까지. 서로 다른 장면을 따라가다 보면 울릉도는 바다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나리분지에서 마주한 초록빛 풍경은 울릉도의 인상을 한층 깊고 풍성하게 만든다.



나리분지



울릉도 전통 가옥 투막집



울릉도 트위스트 노래
유튜브 바로가기



울릉도 트위스트 원곡 이시스터즈

사랑의 콜센타 TOP6

(임영웅·영탁·이찬원·정동원·장민호·김희재)

이시스터즈의 <울릉도 트위스트>는 1966년 발표 이후 오늘날까지 울릉도를 떠올리게 하는 대표곡으로 사랑받고 있다. ‘사랑의 콜센타’ TOP6의 무대로도 친숙한 이 곡은 울릉도 여행의 설렘을 담았다. 독도의 역사와 내수전몽돌해변, 나리분지의 푸른 풍경을 지나온 여행은 노래가 끝난 뒤에도 맴도는 선율처럼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칼데라 지형 안에 자리하며,
울릉도에서 가장 넓은 평지로 꼽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 ① 몽돌분지 ② 투막분지 ③ 나리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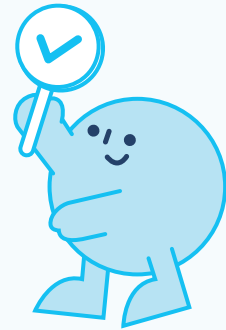


새벽중 퀴즈 바로가기 ▶

대화를 완성하는 비언어적 표현들

눈빛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말해요

사람 사이의 대화는 단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실제로 의미를 주고받는 순간들은 말이 아닌 다른 층위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표정의 미세한 흔들림, 잠깐 멈칫하는 침묵,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 시선이 머무는 시간 같은 비언어적 표현들은 대화에 깊이를 더하고 때로는 문장보다 더 정확하게 감정을 전달한다.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를 잘 활용하면 평범한 내용의 말이더라도 상대방에게 호감과 신뢰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



글 편집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체크리스트

□ 자세와 간격

- 몸은 상대방을 향하기
- 팔짱 등 방어적인 자세 피하기
- 편안하면서도 집중하는 자세 취하기
- 상대와 적절한 거리 유지하기

□ 시선과 표정

- 자연스럽게 눈 맞추기
- 너무 오래 응시하지 않기
- 지나치게 시선 피하지 않기
- 무표정이나 과장된 표정 짓지 않기

□ 목소리 톤과 제스처

- 적절한 속도로 말하기
- 상황에 맞는 크기와 톤으로 말하기
- 자연스러운 손동작으로 메시지 보완하기
- 강조할 부분에서 적절히 활용하기

신체는 의사소통의 핵심

1971년 미국 심리학자 앨버트 메라비언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적 요소보다 비언어적 요소가 훨씬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메라비언의 법칙으로도 유명한 이 이론은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 목소리는 38%, 보디랭귀지는 55%의 영향을 미치지만, 말의 내용은 7%의 영향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즉 효과적인 의사소통, 좋은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말보다는 몸짓이나 태도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세는 신체 언어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대화하는 사람의 감정,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관계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몸을 뒤로 젖힌 채 팔짱을 끼면 매우 거만해 보이고, 대화에 관심이 없거나 의사소통할 의지가 없다고 느끼게 한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를 취하면 상대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깨를 펴고 상대방을 향해 살짝 몸을 기울이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는 것이 좋다.

시선과 표정은 자연스럽게

시선은 진정성과 신뢰성을 전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체 언어다. 시선에는 방향뿐 아니라 길이와 타이밍이 있다. 상대가 중요한

연습해 보아요

비언어적 습관은 연습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대화할 때 호감을 부르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보자.



1	2	3	4	5
스마트폰으로 말하는 모습 녹화하기	거울 앞에서 미소 연습하기	목소리 녹음 훈련	걷는 자세 의식적으로 교정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기
무표정한 순간 시선을 피하는 순간 자세가 무너지는 순간 직접 확인하기	매일 3분, 거울 앞에서 '눈 미소→입꼬리' 순서로 자연스러운 미소 연습하기	매일 책이나 뉴스 한 단락 큰소리로 읽고 녹음하여 속도와 발음 체크하기	걸을 때 어깨를 뒤로 펴고 등을 곧게 세우는 자세 유지하기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인상인지 물어보고 개선점 확인하기

이야기를 할 때 짧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연스럽게 시선을 풀어주는 리듬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든다. 반대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시선을 맞추면 압박감을 줄 수 있고, 지나치게 회피하면 거리감을 만든다. 중요한 것은 시선을 '얼마나 오래 맞추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표정도 감정을 가장 직접 전달하는 요소다. 웃거나 찡그리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표정도 있지만 때로는 미묘한 눈썹의 움직임, 입꼬리의 작은 변화, 눈가에서 나타나는 긴장감 같은 미세한 얼굴의 움직임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상대방의 말에 아주 살짝 놀란 표정을 짓거나, 공감 이 가는 이야기에 눈썹이 부드럽게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렇다고 대화를 할 때 의식적으로 과장된 표정을 짓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상대가 말하는 내용과 표정이 불일치하면 오히려

의도를 오해하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상대의 말에 내 감정이 실제로 반응하여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소리는 낮은 톤으로 반 박자 느리게

마지막 비언어적 요소로 목소리가 있다. 목소리의 톤과 빠르기, 말투와 억양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매력을 어필하는 도구다. 적당하고 명료한 크기의 목소리는 듣는 이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적절한 목소리 톤으로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 무엇보다 명확한 발음으로 문장 끝을 흐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낮은 톤으로 반 박자 느리게 대화를 이끌어가면 신뢰감과 여유로움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 여기에 자연스러운 제스처까지 더해지면 대화를 할 때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뜨거운 여름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올여름엔 미리미리 챙기는 건강 습관

후끈후끈한 날씨, 집 밖을 나서기 무섭게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다. 해가 길어지고 바깥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 강렬한 자외선과 높은 기온, 습한 공기는 우리 몸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특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맘때에는 온열 질환을 비롯해 식중독, 냉방병 등 크고 작은 건강 문제가 생기기 쉬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여름,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글 편집실



온열질환 한낮의 더위가 보내는 몸의 경고

뜨거운 햇볕 아래 오래 머문 뒤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껍다면 그냥 넘겨선 안 된다. 흔히 '더위 먹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이는 몸이 더위에 지쳤다는 신호일 수 있다. 온열질환은 높은 기온에 장시간 노출돼 체온 조절이 어려워질 때 나타나는 급성 질환으로, 두통,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을 동반할 수 있다. 그중 열탈진, 즉 일사병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졌을 때 나타나며, 대체로 의식은 유지된다. 반면 열사병은 의식 혼탁, 언어 장애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응급상황으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갈증이 나기 전부터 물을 자주 마시고,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그늘에서 쉬고, 밝은색 옷을 입으며 모자나 양산으로 햇볕을 피한다. 이상 행동을 보일 때는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지 말고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식중독 방심한 한 끼가 부르는 여름철 불청객

밥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속이 울렁거리고 식은땀이 나며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된다면 단순한 배탈로 넘겨서는 안 된다. 여름철에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빠르게 증식하기 쉬우므로 냄새나 색이 멀쩡해 보여도 방심은 금물이다. 식중독은 대개 충분한 수분 보충과 휴식으로 호전되지만, 고열이 지속되거나 혈변 혹은 심한 탈수 증상이 동반되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지사제는 증상에 따라 오히려 회복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복용하기보다 이온 음료나 끓인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식중독 예방에는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사 전과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날음식과 조리한 음식은 칼과 도마를 구분해 사용한다. 식재료와 조리 도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고, 음식은 속까지 충분히 익혀 먹으며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는 것이 좋다. 조리한 음식은 실온에 오래 두지 말고 2시간 이내에 냉장 보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냉방병 에어컨 바람이 부르는 여름철 감기

뜨거운 바깥 공기를 피해 에어컨이 켜진 실내로 들어서면 금세 살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러나 지나친 냉방은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다. 흔히 '여름철 감기'로 불리는 냉방병은 정식 의학 용어라기보다 냉방 환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실내외 온도 차가 크거나 차가운 바람에 오래 노출되면 신체가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두통, 피로감, 콧물, 코막힘, 소화불량 등이 나타난다. 특히 환기가 부족한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이 오래 이어지면 실내 공기가 건조해져 호흡기 불편감이 더해지기 쉽다.

냉방병을 예방하려면 바깥과의 온도 차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어컨을 켤 때는 실내 온도를 지나치게 낮추지 말고, 주기적으로 환기해 공기를 순환시켜야 한다. 사무실이나 대중교통처럼 온도를 조절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얇은 겹옷을 준비해 체온 변화를 줄인다. 시원하다고 차가운 음료만 찾기보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도 필요하다.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피로감이 심해진다면 냉방이 약한 곳으로 잠시 자리를 옮겨 몸을 따뜻하게 해 주자.

여름철 건강은 작은 습관을 꾸준히 챙기는 데서 시작된다. 외출 전 날씨와 폭염 정보를 확인하고, 모자나 양산으로 직사광선을 차단한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충분히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無理하지 말고 곧바로 쉬는 것도 중요하다. 음식은 상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실내 온도와 환기도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일상에서 챙기는 사소한 관리만으로도 여름을 한결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

한눈에 보는 여름철 건강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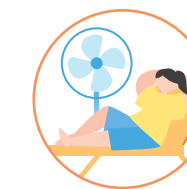
갈증이 나기 전부터 물 자주 마시기



낮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 자제하기
*낮 12시~오후 5시



외출 시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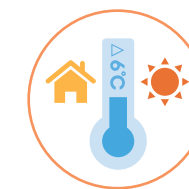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면 즉시 시원한 곳에서 쉬기



요리 전후 손 씻기, 익혀 먹기를 습관화하기



남은 음식은 실온에 오래 두지 않기



실내외 온도 차는 5~8℃ 이내로 유지하기



주기적으로 실내를 환기하고, 얇은 겹옷으로 체온 조절하기

※ 자료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https://health.kdca.go.kr>)

서 울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원 내방

지난 5월 28일, 키르기스스탄 국회 교통·에너지·산업 위원회 소속 주누시바예바 라하트 무르자베크브나 (Zhunushbaeva Rakhat Myrzabekovna) 의원이 중앙회를 방문해 김광림 중앙회장과 현지 새마을운동의 추진 방향 및 협력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키르기스스탄은 2017~2021년 4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2022년부터는 2차 시범마을에서 마을 환경 개선, 마을회관 건립, 수경 재배사업 등을 이어가고 있다.



홍석화 국제협력 자문대사 위촉

중앙회는 지난 6월 15일 홍석화 전 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를 국제협력 자문대사로 위촉했다. 홍 자문대사는 외무부와 주UN대표부, 주니카라과·주과테말라 대한민국대사 등 36년간 외교 분야에서 활동한 국제협력 전문가로, KOICA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개발협력 사업 전략 수립과 국제 파트너십 강화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앞으로 중앙회의 국제협력 사업 자문과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지구촌새마을운동 가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한 미얀마 대리대사 내방

지난 6월 2일, 묘민트 마웅(Myo Myint Maung) 주한 미얀마 대리대사가 최형재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의 새마을운동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미얀마 내 새마을운동 추진 현황과 향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얀마는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는 9개 자생마을에서 주민 주도의 새마을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내방

지난 7월 14일,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중앙회를 방문해 김광림 중앙회장과 국제개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중앙회의 새마을교육 노하우와 50개 협력국에서 축적한 새마을운동 추진 경험,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및 KOPIA(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농촌발전과 주민 자립을 위한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일을 꿈꾸다

새마을보리밭

시·도지부 소식

서울

농촌 일손 돕기

서울시부녀회(회장 조동희)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 까지 충북 단양군에서 '2026 수확의 기쁨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25개 구 부녀회원 약 1,000명이 참여해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힘을 보탰다. 부녀회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마늘 수확 작업에 정성을 다했고, 도농상생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 조동희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새마을정신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부산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개최

부산시새마을회(회장 백옥자)는 지난 6월 7일 삼락생태공원에서 새마을운동 제창 56주년과 제16회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는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다. 이날 김경덕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새마을지도자, 시민 등 2,500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다채로운 공연과 어울림 골든벨 대회, 세대공감 콘서트 등 전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대구

제16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

대구시새마을회(회장 최영수)는 지난 6월 11일 iM뱅크 대강당에서 내빈과 새마을가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운동 56주년 및 제16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새마을운동 유공자 9명에게 대구시장 표창을, 30년 이상 근속한 지도자 15명에게 새마을 기념장을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인천

제16회 인천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

인천시새마을회(회장 이항일)는 지난 4월 29일 인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새마을운동 56주년 및 제16회 인천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주요 내빈과 새마을지도자, 시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기념식은 "함께 새마을, 미래로·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 참여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새마을운동의 방향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생명존중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새마을회(회장 류재선)는 지난 6월 15일 광주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유승형) 및 관계 기관들과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은 앞으로 민간단체와 전문기관이 협력하는 지역 밀착형 복지 체계를 공고히 하고, 주민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몽골 지구촌 새마을운동 국제교류 사업 전개

대전시협의회(회장 이경원)는 지난 6월 17일부터 4박 5일간 몽골 울란바토르 니라이흐구 3동 이캅(KHAM) 마을에서 지구촌 새마을운동 국제교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대전시 및 구 협의회장 등 총 23명이 참가해 육묘장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나무를 심는 등 뜻깊은 활동을 펼쳤다. 또한 몽골 주민들에게 전기담요와 텀블러를 기증하고, 대전예고 학생들이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한 위생용품 200세트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2026 마을공동체운동 추진리더 워크숍 개최

울산시새마을회(회장 정대식)는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한화리조트 경주에서 '2026 마을공동체운동 추진리더 워크숍'을 개최했다. 새마을지도자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 맞춤형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또한 '혁신하는 리더, 유쾌한 마을공동체'와 '우리가 바로 생명지킴이'라는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퇴치운동 전개

세종시새마을회(회장 김영제)는 지난 6월 5일 부강면 금강변 일원에서 새마을가족 100여 명과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가시박 등) 퇴치운동 발대식'을 열고 대대적인 제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토종 식물의 생육을 방해하는 가시박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금강 주변 서식지를 돌며 가시박을 전량 수거하는 한편, 환경정화 활동을 병행하며 외래종의 위해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했다.



제18회 안양북페스티벌 현장 격려

경기도새마을회(회장 이호경)는 지난 6월 13일 안양 평촌중앙공원에서 열린 '제18회 안양북페스티벌'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시민들을 격려했다. '책 한 권의 설렘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특별한 하루'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 이호경 회장은 도내 시군 문고지도자들과 함께 행사장을 둘러봤다. 특히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문고안양시지부 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캄보디아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현장 점검

강원도협의회(회장 백상원)는 지난 6월 15일부터 2박 3일간 캄보디아를 방문해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우호 협력 활동을 펼쳤다. 방문단은 깜뽕츠낭 주 톨록롤롱 새마을유치원을 찾아 현장을 살폈다. 어린이들에게 한국 그림책과 교육자료를 전달했으며, 학교 측은 지난 2년간의 지원에 대한 감사장을 전해왔다. 이어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해 김창룡 대사와 간담회를 갖고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했다.



피서지 안내 봉사센터 및 새마을문고 개소

충청북도새마을회(회장 남재호)는 지난 6월 10일 충주 목계솔밭 캠핑장에서 새마을지도자 200여 명과 '2026 피서지 안내 봉사센터 및 새마을문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충주시를 시작으로 도내 10개 시군 새마을회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순차적으로 봉사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환경정화 활동, 무료 도서 대여, 관광 안내, 체험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피서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시군회장 및 사무국장 워크숍 개최

충청남도새마을회(회장 성낙구)는 지난 6월 24일부터 이틀간 태안 아일랜드 리솜에서 '2026 시군회장 및 사무국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충남 새마을운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회원들은 국제협력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조별 토론을 통해 실천 방안을 도출했으며, 소통의 시간을 통해 미래지향적 활동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백일홍회 부녀회 동행 간담회 및 길 위의 인문학 기행

전라북도새마을백일홍회(회장 성경덕)는 지난 6월 23일 고궁본점에서 '시군 부녀회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온기나눔 사업비를 전달하고, 우수 부녀지도자 자녀 3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한편, 문고전라북도지부(회장 나순희)는 6월 25일 전남 담양과 전북 고창 일원에서 주민 및 문고 가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길 위의 인문학 기행'을 했으며, 한국가사문학관, 소재원 등을 탐방하며 문학적 정서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6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

경상북도새마을회(회장 이상해)는 지난 6월 24일 '제16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제19대 경상북도새마을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지도자와 내빈 1,000여 명이 참석해 새마을운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상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방소멸과 저출생, 청년 유출, 공동체 약화 등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시·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마을운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라오스 일라이중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

제주도새마을회(회장 김창기)는 지난 6월 25일부터 29일 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시 일라이중·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교실 천장 및 외벽 보수, 울타리 조성, 학용품 500세트 지원 등이 이루어졌으며, 26일 열린 헌판식에는 제주 방문단과 라오스 교육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창기 회장은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제협력과 나눔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호국보훈 정화활동 및 통일 꽃동산 가꾸기 전개

이북5도새마을회(회장 조성원)는 지난 5월 22일 이북5도협의회(회장 마영휘)와 이북5도부녀회(회장 서영미) 등 새마을지도자 70여 명과 함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서울충원을 찾았다. 회원들은 순국선열에 참배하고 묘역 비석 닦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어 6월 23일에는 이북도민들의 망향의 한이 서린 동화경모공원을 방문해 묘역 주변 쓰레기 줍기와 통일 꽃동산 잡초 제거 활동을 펼치며 평화통일의 염원을 다졌다.



사무직원 한마음 워크숍 및 길 위의 인문학 기행

전라남도새마을회(회장 양재원)는 지난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고흥 썬밸리리조트에서 사무직원 49명과 '2026 전남 새마을 사무직원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해 현장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문고전라남도지부(회장 백영자)는 지난 5월 7일 경남 하동 일원에서 문고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길 위의 인문학' 기행을 실시하고, 박경리 문학관과 최참판댁 등을 탐방했다.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체험 교육 전개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최만환)는 안전문화 저변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경로당, 마을회관, 노인주간보호센터(어르신 유치원) 등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시각 자료와 체험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 속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령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에너지절약수기 공모전 수상자 발표

🏆 **우수상**

도성우	전인영	홍성진
-----	-----	-----

🏆 **장려상**

김길환	김정숙	성민희	이정열
이지희	임한호	조전숙	차민석
최지은	홍성화		



#새마을반점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온기나눔

광주 북구새마을회

신한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사랑의 짜장면 나눔

무슨 일을 했나요?

- 이웃과 정을 나누며 따뜻한 소통 및 공동체 문화 조성
- 관내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을 돕는 나눔 실천

어떻게 했나요?

- 중식당 운영 경력 협의회장의 재능기부로 수제 짜장면 조리
-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어르신 300여 명에게 정성껏 대접

Point

- 재능 기부와 새마을 봉사 정신의 시너지로 지역사회 온기 전파



#자원위기극복 #에너지절약

#캠페인

경기 시흥시새마을회

자원위기극복 에너지절약 캠페인

무슨 일을 했나요?

- 비상경제 상황과 자원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 실시

어떻게 했나요?

- 삼미시장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 전개
- 거리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절약 요령을 전파

Point

- 경제위기 속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및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 조성
- 전통시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자살예방 #생명존중안심마을

#자살예방인식개선

대전 대덕구새마을회

찾아가는 생명지킴이 교육

무슨 일을 했나요?

-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과제 실천 및 지역 내 자살예방 인식 개선
- 정부의 자살률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어떻게 했나요?

-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머느리 봉사대 연계 안전망 구축
- 발굴부터 연계, 사후관리까지 포괄하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가동
-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자살 징후 발견과 대응을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

Point

- 지역 맞춤형 생명지킴이 교육을 통한 자살예방 실천 역량 강화
- 촘촘한 지역 자원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함께하는사회공헌활동 #밀반찬

#이웃사랑실천

울산 북구새마을회

건강 가득 반찬 나눔

무슨 일을 했나요?

-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한 밀반찬 나눔
- 엔비티에스(주) 직원들과 함께하는 지역 상생 봉사 활동

어떻게 했나요?

- 북구자원봉사센터 조리실을 활용한 공동 조리 및 협업
- 정성껏 만든 밀반찬 3종을 취약계층 160세대에 직접 전달

Point

- 취약계층의 정서적 지원 및 이웃사랑 실천을 통한 고립감 해소
- 기업과 새마을회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 나눔 문화 확산



#온기나눔 #체험교실

#문고강원춘천시지부

강원 춘천시지회

방과 후 3D펜 체험교실

무슨 일을 했나요?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3D펜 그리기 체험교실 운영

어떻게 했나요?

- 문고 회원들이 초등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활동 진행
- 3D펜 기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춘천시 지역 문화유산 학습 전개

Point

- 창의체험 활동을 통해 지역 초등학생들의 고향 문화유산 이해 증진



#탄소중립 #환경오염예방
#기후위기대응

강원 철원군새마을회 폐비닐 및 농약병 분리배출

무슨 일을 했나요?

-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폐비닐 공동 수거장 운영
- 영농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한 녹색 생활 실천

어떻게 했나요?

- 협의회 회원들의 폐비닐·농약병 공동 수거의 날 운영 및 현장 수거
- 4월~10월까지 매주 월요일 폐비닐 수거장 정기 운영

Point

- 탄소중립 실천 기반 조성 및 농촌 환경오염 예방
- 버려지는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학교운동장관리 #이웃사랑실천
#더불어잘사는공동체

충북 옥천군새마을회 학교 운동장 관리 지원 사업

무슨 일을 했나요?

-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활동 실시

어떻게 했나요?

- 평일 새벽과 공휴일을 활용한 새마을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활동 전개
- 트랙터 및 H빔 등 전문 장비를 동원한 운동장 평탄화 및 화단 정리

Point

- 지역 연계 시설관리 지원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교육청과의 협업 추진을 통해 학교와 마을의 상생 기반 마련



#장학금기탁 #지역사회나눔
#지역축제홍보

충남 논산시새마을회 딸기축제 운영 수익금 장학금 기탁

무슨 일을 했나요?

-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후원

어떻게 했나요?

- 논산딸기축제 먹거리장터 운영 수익금 500만 원 장학금 기탁

Point

- 축제 수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의 나눔 문화 실천
- 지속적인 봉사 및 기부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환경보호 #자원재활용
#농촌정화

충남 금산군새마을회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무슨 일을 했나요?

- 농약 폐기물 집중 수거
-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 및 생활환경 정화

어떻게 했나요?

- 수거한 농약 폐기물 종류별 분류 및 공동집하장으로 운반·처리
- 주민들 대상 올바른 배출 방법 안내 및 홍보 캠페인 전개

Point

- 농촌 환경오염 예방 및 탄소중립 실천 기여
-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한 친환경 농촌 공동체 조성



#세대공감 #추억회상
#공동체활성화

전북 정읍시새마을회 빛나는 청춘, 다시 봄봄봄 어르신동요대회

무슨 일을 했나요?

- 관내 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억의 동요대회 개최
- 문화 활동을 통한 어르신들의 정서적 활력 및 성취감 고취

어떻게 했나요?

- 복지관별 참가팀 구성 및 사전 연습 진행
- 유관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참여형 문화 행사 운영

Point

- 추억의 동요를 매개로 한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과 삶의 활력 증진
- 관내 복지관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교류의 장 마련



#자원순환 #도서관
#독서문화

전남 순천시새마을회 새마을문고 도서교환전

무슨 일을 했나요?

- 시민 참여형 도서 나눔의 장 마련
- 자원 재사용 및 독서문화 활성화 도모

어떻게 했나요?

- 신간은 2:1, 구간은 1:1 방식으로 맞춤형 도서 교환 진행
- 행사 후 남은 도서는 관내 복지시설 및 작은도서관에 기증

Point

- 자원순환형 도서 나눔을 통한 환경보호 기여
- 세대 간 자발적 참여와 기부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자원순환 #ESG실천
#나눔기금

전남 장흥군새마을회 에코프렌즈 자원순환 캠페인

무슨 일을 했나요?

- 에코프렌즈 자원순환 캠페인 전개
- 이웃사랑 실천 기금 마련

어떻게 했나요?

- 농가 및 경로당 방문 캔 수거 활동 전개
- 캔 분류 및 압축 공정을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 실천

Point

- 자원 순환 및 환경 보호 기여
- 버려진 자원을 나눔의 가치로 연결하는 선순환 모델 구축



#김천새마을환경페스타 #탄소중립실천
#자원순환

경북 김천시새마을회 2026 새마을 환경페스타

무슨 일을 했나요?

- 폐자원 수거 및 에너지 절약 실천
- 시민·단체 연계 환경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의식 고취

어떻게 했나요?

- 환경 퀴즈, 모종 심기, 분리 수거 놀이 등 맞춤형 환경 체험 운영

Point

- 시민 참여형 환경 축제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 교육과 체험의 연계로 미래세대의 환경보호 의식 제고



#선풍기새단장 #성주군청년새마을연대
#따뜻한공동체

경북 성주군새마을회 시원한 여름나기 어르신 선풍기 새단장

무슨 일을 했나요?

-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돌봄 공동체 활성화

어떻게 했나요?

- 청년연대와 부녀회원들이 마을회관 선풍기 수리
- 홀몸어르신 댁과 경로당의 노후 선풍기 세척·정비 후 전달

Point

- 취약계층의 쾌적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세대를 아우르는 봉사 참여로 마을 공동체 조성



#국제협력교류 #지구촌공동체
#라오스도로포장

경남 창원시새마을회 라오스 국제협력교류 사업

무슨 일을 했나요?

- 현지 인프라 구축으로 지구촌 이웃의 생활 여건 개선
- 상호 문화체험을 통한 연대감 형성 및 글로벌 공동체 의식 고취

어떻게 했나요?

- 라오스 농림환경부의 긴급 요청에 따른 자재 지원 및 도로포장 전개
- 현지 아동 교육 및 생활 물품 전달, 전통놀이를 통한 문화 교류

Point

- 주민의 노동력과 새마을회의 자재 지원이 합쳐진 상생형 인프라 구축
- 한식·전통놀이를 통한 글로벌 문화 교류 및 유대감 형성



#건강새마을가꾸기 #인절미만들기
#조물조물인생이야기

경남 거창군새마을회 조물조물 인생 이야기

무슨 일을 했나요?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세대공감 전통 먹거리 체험활동
- 청년연대가 함께하는 어르신 추억 소환 프로젝트

어떻게 했나요?

- 경로당을 찾아 전래동화 구연
- 어르신들과 함께 콩고물 인절미 만들기

Point

- 전통 인절미 제조법 전수로 세대 간 공감대 형성
- 오랜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며 어르신들의 자존감 및 성취감 제고



#독도탐방 #나라사랑실천
#다문화가족

제주 서귀포시새마을회 다문화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역사 바로알기

무슨 일을 했나요?

- 다문화이주여성 대상 영토·역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 실시
- 올바른 역사 이해 및 나라사랑 의식 함양

어떻게 했나요?

- 부녀회와 다문화이주여성의 독도 및 경주 현장 견학
- 독도 영토 주권에 관한 해설 청취 및 경주 문화유산 답사

Point

- 한국인으로서 자긍심 및 영토 주권 의식 고취
- 동행 활동을 통한 상호 이해 및 공동체 의식 강화



새벽종 독자 의견

〈새벽종〉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소감은 다음 호에 소개되며, 선정되신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QR코드 스캔

〈새벽종〉 2026년 05+06월호



<새마을-ing ②>

새마을운동 56주년 기념식 소식을 잘 보았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시작해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새마을운동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각오와 방향을 함께 다지는 뜻깊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강창규



<지구촌새마을 속으로>

짐바브웨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가뭄과 빈곤 속에서도 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변화를 꿈꾸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연수생의 이야기를 통해 이들의 새로운 도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박향숙



<우리동네 새마을 ②>

10년 넘게 이어온 아름다운 활동이 '2025년도 전국 시군구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진 것은 회원들의 끈기와 협력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활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모습이 흐뭇했습니다.

장우익



<새마을을 만나다>

봉사로 세상을 배우는 소녀의 따뜻한 성장기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딸과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이어온 심상희 님의 사연을 읽으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도움을 받기보다 봉사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성장하는 길을 선택한 모습이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숙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판매사업 등록업체

판매사업은 신뢰가 먼저입니다.

직접 생산·가공하는 2대 가업, 완도금복식품

유통업체가 아닌 공장직영·직접생산업체로, 품질인증 기반·정확한 원산지 표기·안정적 공급 대응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 중앙회 판매사업 경력만 30여 년!
판매사업의 구성부터 납품까지
친절하고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복식품의 계절별 주력상품 안내

봄철 추천품목

가정용·행사용·선물용·실속품목



맥반석완도미역
300g/100인분
박스/30개입



맥반석완도다시마
300g/100인분
박스/40개입

소포장 제품들도
다양하게 구성 가능합니다.

선물세트뿐만 아니라
지회 판매사업용
구성 상담 가능



가을·겨울 추천품목



완도청각 300g
대용량 해조류 실속품목
박스/50개입



곰창돌김 50매
고급김 판매사업 추천품목
박스/50개입



구이김 5매x8봉
반찬용·명절판매구성가능
박스/25개입



새우젓 2kg
김장철·행사용 수요품목
박스/8개입

금복식품 브랜드 스토리

금복식품은 단순히 미역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엄마가 안심하고 끓이는 미역국,
아이에게 밀고 먹이는 김,
가족 밥상에 올려도 부끄럽지 않은
완도의 깨끗함을 전합니다.

새마을 판매사업에 어울리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 금복식품

금복식품이 다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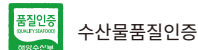
- 직접 생산·가공
- 2대 가업·Since1983
- 품질인증기반
- 정확한 원산지표기
- 안정공급·행사물량대응

단순 유통업체가 아닌 완도에서
직접 생산·가공하는 전문업체

등록품목 기준 공급 가능

미역류	완도미역60g~300g
다시마류	완도다시마60g~300g
김류	곰창돌김, 파래김, 돌김, 조미김, 도시락김
젓갈류	새우젓, 멸치액젓
기타 해조류	청각 300g

*본 광고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등록품목 기준으로
상담 및 납품됩니다.
*제품별 원산지, 규격, 입수, 포장구성은
상담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061-554-7836
010-2628-8594

판매사업 준비 중이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금복식품이 성심껏 상담해드립니다.

등록품목확인·제품구성·원산지안내·납기상담·행사물량대응



대표 홍 정 기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3길 15

kumbokfood@naver.com
www.kumbokfood.com